

삼성전자, 드림클래스 개최... '나눔의 선순환' '소부장 강소기업'을 바라본 단상

읍·면·도서지역 중학생 1600명 참가

삼성전자가 올 겨울에도 '삼성 드림클래스'를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개 대학에서 읍·면·도서지역 694개 중학교 학생 1600명과 대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2020년 '2020년 삼성 드림클래스 겨울캠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는 교육부와 함께 군인과 소방관, 국가유공자 등 자녀 495명을 포함해 선발했다.

드림 클래스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에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로 참가하는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9년차를 맞으며, 멘토 540명 중 72명이 참가 학생이었을 만큼 '나눔의 선순환'도 이뤄지고 있다.

참가한 중학생들은 대학생 멘토와 합숙하며 총 150시간 동안 영어·수학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 평소 접하기



삼성 드림클래스 참가자들.

/삼성전자

힘들었던 대학 전공 박람회, 진로 멘토링과 음악회 등 문화체험의 기회도 주어진다.

원통중학교 2학년 권현우 학생은 "병풍 같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한적한 마을에 살다 보니 공부에 대한 특별한 자극없이 생활해 왔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이번 캠프를 통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찾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중학생 드림클래스에 참가했던 전우택 씨는 "캠프에 참가해 대학생 멘토를 만나면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올해는 대학생 멘토로서 후배들도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동서발전, 울산 태화강서 새해맞이 환경정화

임직원 40여명 참여... 환경보호 앞장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3일 울산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본사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또 지난 2일에는 '새로운 10

년! 청렴한 녹색에너지로 보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0년도 시무식도 가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청렴한 녹색에너지'는 향후 동서발전의 새로운 10년을 상징하는 문구로, 임직원의 청렴한 자세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강조하는 의미"라며 "친환경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는 동서발전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동서발전은 전국 5개 사업장에서 '1사 1하천 및 1사 1산 가꾸기' 활동을 통해 발전소 인근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000만원 상당의 '탄소상쇄 숲가꾸기' 사업으로 울산대공원 박물관 주변 산지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공언한 가운데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5년이 아닌 50년, 더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에게나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에도 선진국의 기술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재·부품 등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놀란 정부는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 금속,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초 화학 분야에 걸쳐 강소기업 55 곳을 선정한 바 있다. 나머지 45 곳도 올해 추가 공모를 진행, 총 1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에 1곳당 5년간 최대 182억원이라는 엄청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마케팅, 공정혁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기업을 찾는 일이다. '소·부·

장'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했다더라도 이를 믿고 써줄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있어야 공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 당장은 이들 기업의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하더라도 수요기업은 이를 기다려주는 미덕도 있어야 한다. '기다림'은 결국 우리 강소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라서는 시간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부장 강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쓰는 수요기업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정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회를 잡게 된 강소기업들도 국민들이 낸 혈세의 무게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5년간 최대 182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업 1곳당 지원키로 한 만큼 기업들은 빠른 기술 개발과 최고의 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하면 그뿐이다.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6일 (음 1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이 그림다. 4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 60년생 적의 적은 동지이니 힘을 모으자. 72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아 비옥한 땅이 된다. 84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소 37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준비. 49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이 즐겁다. 61년생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 73년생 주변은 평온한데 혼자만 바쁘니 몸이 피곤. 85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리고 온다.

호랑이 38년생 날새 뒷안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5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62년생 동료와 협업으로 하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74년생 의외의 귀인이 옆에서 도움을 준다. 86년생 자기주장만 되풀이하지 마라.

토끼 39년생 기억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라. 51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63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다. 75년생 무리가 따르더라도 꾸준히 하다면 성과는 있다. 87년생 작은 것이라도 진중하게 여기자.

말 40년생 하나를 투자해서 열을 얻는 날. 52년생 보석비가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64년생 꽃은 아름다워도 열매를 가지 못한다. 76년생 변화의 좋은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처신. 88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활로를 개척하자.

뱀 41년생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겨라. 53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앉으려니 마음이 불편. 65년생 자식이 재능이 많은데 지출도 크다. 77년생 상사의 뜻에 따르는 것이 부담이 적다. 89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저절로 멀어진다.

말 42년생 거절을 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54년생 돈을 빌려 줄 때는 적선으로 생각하라. 66년생 나보다 열배 나은 조상님이 자랑스럽다. 7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90년생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은 들뜨고 외롭다.

양 43년생 한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라. 55년생 내키지 않은 술자리는 피하자. 67년생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행운을 가져온다. 79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의 관심도 받는다. 91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원숭이 44년생 돈거래는 잘 살펴서 하자. 56년생 격한 언행으로 서로가 피해만 본다. 68년생 조금씩 일을 그려볼 수 있다. 80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9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닭 45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을 챙겨라. 57년생 지나친 욕심이 복을 치는 결과. 69년생 쥐똥의 거래가 손조롭다. 8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전진. 93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마음을 알릴 수 있다.

개 46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58년생 재테크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 보자. 70년생 기대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 82년생 세상은 내 편이니 기죽지 말고 살자. 94년생 안되는 일에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

돼지 47년생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대하라. 59년생 안부를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71년생 문제를 찾을 수 없으니 정답도 없다. 83년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 95년생 속이 흰히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에 속아준다.



김상회의四季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의 시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나라의 국시(國是)가 유교로 바뀐 조선 시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 시대 때도 여자 임금에 있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동등하다 못해 더 활발했다는 문화적 증거들이 적지 않다.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는 암탉이 아닌 수탉이라고 하니 암탉이 울게 되는 것 자체가 드문 경우이다. 암탉을 여성에 비유하여 여자는 그저 남편을 내조하며 안 가장의 역할만 조용히 하라는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사고의 극치라 본다. 더 나아가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속담도 있다. 여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팔자가 세다거나 첫 손님이 여자면 그날은 재수가 없다는 등의 얘기도 있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반이다. 파키스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는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가볍게 때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땅이 넓은 인도 역시 지방 곳곳에서는 아직도 신부의 결혼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한다. 억울하게 성폭력을 당해도 오히려 피해자로서 위로받기는커녕 집안의 명예에 막혔다며 남자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달이나 여러 행성에 우주를 쏘아 보내는 과학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사실 가부장적 사고와 전통 아래서 아버지들이 권위를 내세우지만 의외로 생활력이 약해 가계가 어려운 집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젊은 청년들이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과도하며 오히려 역차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단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4		
5				4		3	8	
			8		6			
2	3		6		9	4		
	7		4		2			
		9		1				7
6	4		2				3	
	5		3			2		
					1			

								6
2								
	6	1	8					4
5			4	2				
6	1			5	9			
8	5		1					3
	7	2		6			5	
		6		7	4			1

스도쿠 정답								
4	6	5	1	2	9	7	8	3
9	2	7	8	9	6	1	5	4
8	3	1	6	5	2	4	7	9
1	8	9	4	3	1	6	9	7
3	5	2	7	8	4	9	1	6
7	4	8	9	6	5	2	1	3
1	8	9	2	7	4	6	3	5
6	9	7	5	3	1	8	4	2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1호